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1. 8. 11.(수) 총 9매(본문 6, 참고 3)	
담당 부서	어업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양영진, 서기관 정재훈, 주무관 박치현 ☎ (044) 200-5510, 5511, 5515	
	어촌양식정책과		·과장 김성원, 서기관 강희정, 주무관 김주현 ☎ (044) 200-5610, 5614, 5615	
	원양산업과		·과장 이규선, 사무관 서민혜, 주무관 성미경 ☎ (044) 200-5360, 5366, 5367	
	국립수산물과학원 연근해자원과	담 당 자	·과장 임양재, 연구사 김중진 ☎ 051)720-2287	
보 도 일 시		2021년 8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1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올해 상반기 국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5.2% 증가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으로 수산물 먹거리 공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업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어업생산량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상반기(1~6월)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총생산량이 전년 동기(226.5만 톤)보다 11.8만 톤 증가한 238.3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식어업과 원양어업의 생산량 증가가 전체 어업생산량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21년 상반기 국내 어업 생산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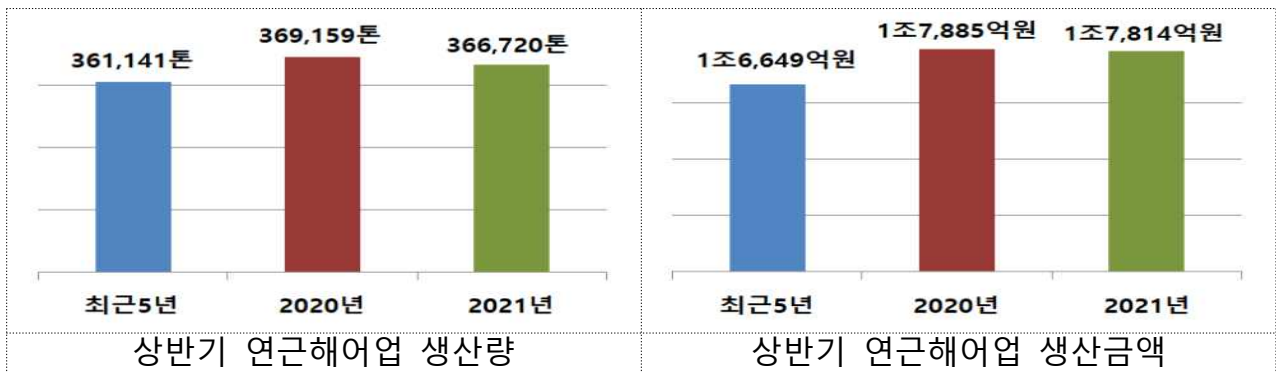
(단위 : 톤, %)

구 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율
전 체	2,264,718	2,383,296	5.2%
연근해	369,159	366,720	△0.7%
양 식	1,647,108	1,732,948	5.2%
원 양	233,688	265,809	13.7%
내수면	14,761	17,820	20.7%

*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 연근해 어업 >

올해 상반기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총 36.7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36.1만 톤)에 비해 1.5% 증가했으며, 2020년 상반기(36.9만 톤)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Delta 0.7\%$)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5.9만 톤($\Delta 17.4\%$), 고등어 2.9만 톤(30.8%), 갈치 2만 톤(0.4%), 오징어 1.2만 톤($\Delta 37.3\%$), 꽃게 0.5만 톤(85.4%) 등이다.

<주요 연근해 어종별 생산동향>

(단위 : 톤, %)

구 분	최근 5년 평균	2020년	2021년	최근 5년 평균 대비 증감율	전년 대비 증감율
멸치	58,989	71,944	59,419	0.7	$\Delta 17.4$
고등어	25,122	21,944	28,712	14.3	30.8
갈치	14,770	19,818	19,888	34.7	0.4
오징어	19,497	20,464	12,835	$\Delta 34.2$	$\Delta 37.3$
꽃게	3,236	2,588	4,797	48.2	85.4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는 지난해 겨울철 고수온으로 어황이 부진했으나, 올해 1~3월에 주 어장인 제주 서부 근해를 중심으로 평년 수온을 회복하면서 자원밀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 어업의 휴어기*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면서 조업 일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선망 휴어기(금어기 1개월 포함) : ('19) 4. 19.~7. 16. ('20) 4. 7.~7. 10. ('21) 4. 26.~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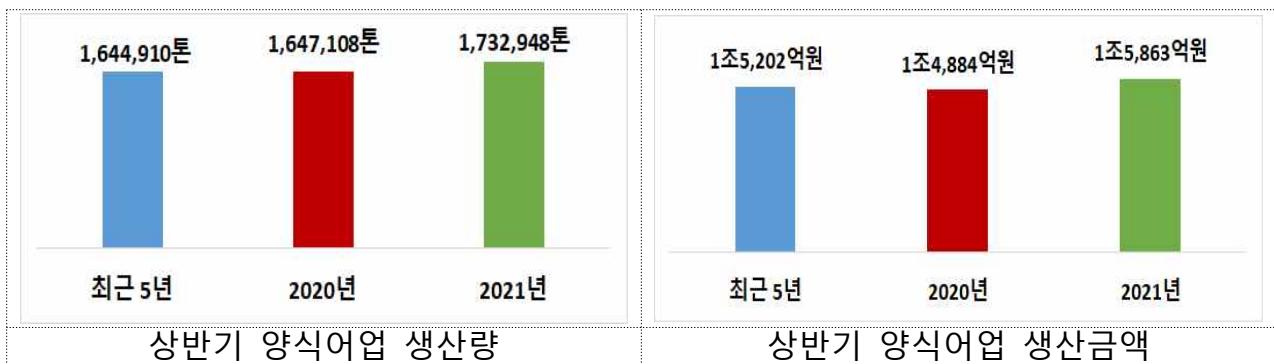
반면, 오징어는 올해 2~3월 동해 근해 고수온(평년 대비 $1.5\sim 3.5^{\circ}\text{C} \uparrow$)의 영향으로 어군이 먼 바다로 분산되어 어장 형성이 다소 부진하였으며,

오징어가 북상하는 5~6월에는 연안층 저수온 영향으로 어군이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 연안어선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꽃게는 지난해 긴 장마로 강수량이 증가하여 영양염류와 플랑크톤 등 유생의 생육조건이 크게 개선되어 봄 어기(4~6월)에 어군밀도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조업도 증가하여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양식 어업 >

올해 상반기 양식어업 생산량은 총 173.3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164.5만 톤)에 비해 5.4%, 전년 동기(164.7만 톤)에 비해 5.2% 증가하였다.



해조류를 제외한 주요 어패류 생산량은 굴 17.3만 톤, 홍합 3.5만 톤, 넙치 2.0만 톤, 멍게(우렁챙이) 1.5만 톤, 전복 1.1만 톤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양식 어패류 생산동향>

(단위 : 톤, %)

구 분	최근 5년 평균	2020년	2021년	최근5년 평균 대비 증감율	전년 대비 증감율
굴	171,947	163,228	173,467	0.9	6.3
홍합	32,434	34,879	35,110	8.3	0.7
넙치	20,753	21,573	20,368	△1.9	△5.6
멍게	26,538	27,679	14,776	△44.3	△46.6
전복	7,889	9,342	10,644	34.9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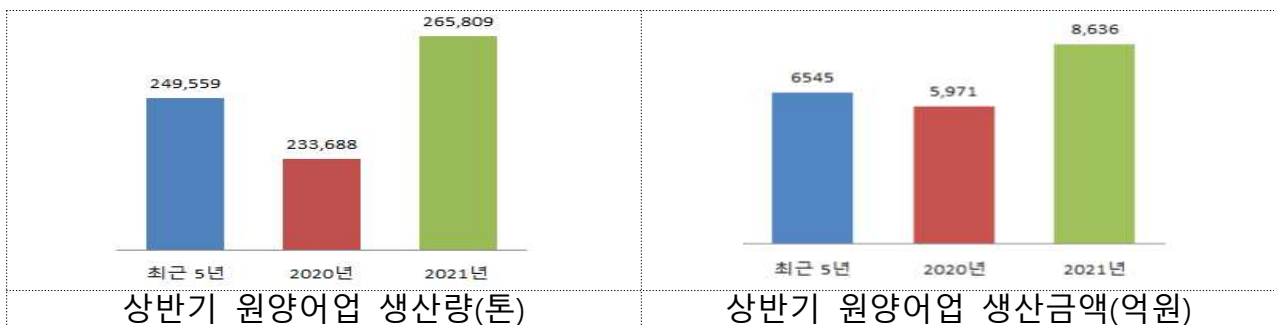
겨울철 대표 보양식인 굴의 경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둔화로 인해 출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하였다.

반면, 대표 양식어종인 넙치(광어)는 2019년까지 적체 물량이 있어 생산지를 중심으로 2019년도 이후 입식량을 조절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출하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아 생산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5.6% 감소하였다.

명게의 경우 올 상반기 생산량이 전년 대비 46.6% 감소하는 등 급격히 물량이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 소수괴)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명게의 양성기간이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2020년도의 1년산 명게 폐사 증가가 올해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정된다.

< 원양 어업 >

올해 상반기 원양어업 생산량은 26.6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25만 톤)에 비해 6.5%, 전년 동기(23.4만 톤)에 비해 13.7% 증가하였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11.6만 톤, 오징어류 6.6만 톤, 황다랑어 2.3만 톤, 눈다랑어 1.2만 톤, 민대구류 0.3만 톤, 명태 0.3만톤, 이빨고기 0.2만 톤 등이다.

< 주요 원양 어종별 생산동향 >

(단위 : 톤, %)

구 분	최근 5년 평균	2020년	2021년	최근5년 평균 대비 증감율	전년 대비 증감율
가다랑어	117,888	104,612	116,020	△1.6	10.9
오징어류	38,151	36,062	66,025	73.1	83.1
황다랑어	27,530	30,427	22,799	△17.2	△25.1
눈다랑어	12,387	13,027	12,370	△0.1	△5.0
명태	3,275	3,827	3,039	△7.2	△20.6
민대구류	2,963	1,111	3,020	1.9	171.8
메로(이빨고기)	1,486	1,469	1,889	27.1	28.6

올 상반기 원양어업 생산량 증가는 오징어류가 견인하였다. 오징어는 지난해 대비 어획 호조로 올해 상반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오징어의 경우 남서대서양 어장에서 연말부터 5~6월까지 어군이 형성되는데, 지난 5월 27일을 기준으로 우리 오징어 채낚기 선박 27척은 상반기 조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어장에서 철수했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의 경우, 중서부태평양 선망 어선들을 중심으로 3월까지 어획 호조를 이어갔으나, 5~6월에 어획량이 감소하여 상반기 어획량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이 어획하는 눈다랑어 또한 전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획량을 기록했다.

황다랑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체 어획량이 전년 동기보다 25% 이상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태평양에서의 어획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 황다랑어 상반기 생산량(톤) : ('20) 30,427(태평양: 27,698, 인도양: 2,329) → ('21) 22,799(태평양: 18,751, 인도양: 3,922)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어업생산금액은 4.45조 원으로 전년 동기(4.10조 원)보다 8.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생산량이 증가한 원양어업(0.86조 원, 44.6%)과 양식어업(1.59조 원, 6.6%)이 어업분야 전체 생산금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21년 상반기 국내 어업 생산금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율
전 체	4,096,444	4,451,378	8.7%
연근해	1,788,453	1,781,419	△0.4%
양 식	1,488,410	1,586,323	6.6%
원 양	597,150	863,634	44.6%
내수면	222,430	220,001	-1.1%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업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상반기에 안정적인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고수온·적조를 비롯한 제약 요인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반기 생산비중이 높은 어패류 등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양수산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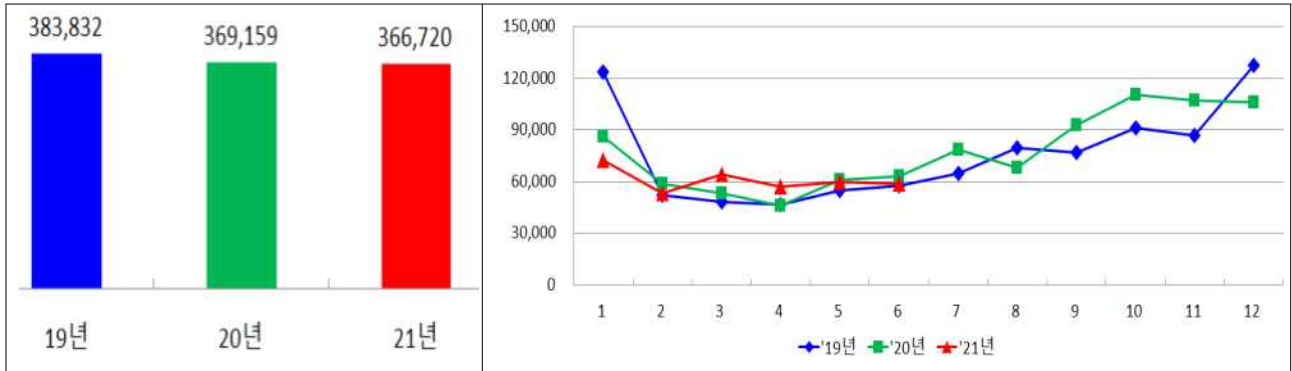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1

월별 · 어종별 연근해어업 생산동향

(단위 : 톤,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	123,543	52,322	48,150	46,807	55,181	57,828	65,115	79,572	77,127	91,303	87,133	127,770
'20년(A)	86,546	58,737	53,366	46,235	61,207	63,068	78,436	67,959	92,969	110,766	106,988	106,046
'21 (B)	72,644	53,569	64,557	57,281	60,013	58,655						
대비(B/A)	△16.1	△8.8	21.0	23.9	△1.9	△7.0						



《 연도별 상반기 》

《 월별 》

어종별 생산동향

(단위 :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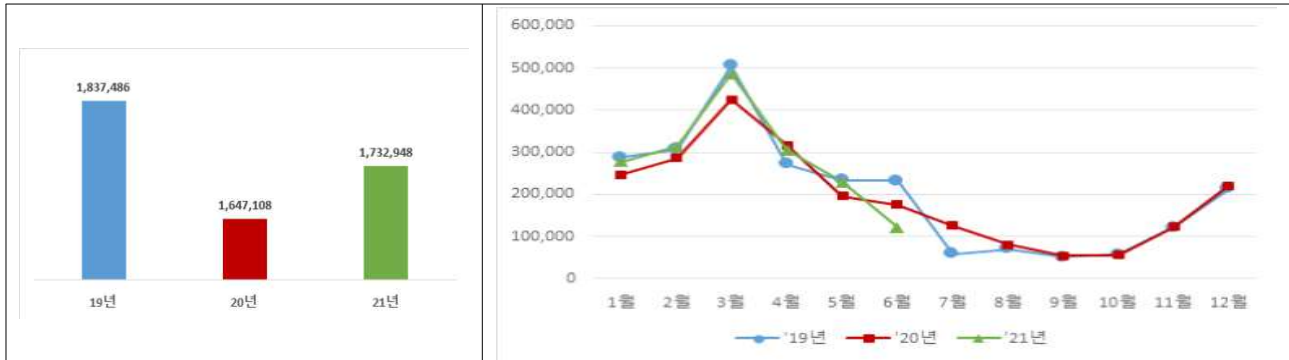
구 분	최근 5년 평균	2020년	2021년	최근5년 평균 대비 증감율	전년 대비 증감율
계	361,141	369,159	366,720	1.5	△0.7
멸치	58,989	71,944	59,419	0.7	△17.4
고등어	25,122	21,944	28,712	14.3	30.8
갈치	14,770	19,818	19,888	34.7	0.4
오징어	19,497	20,464	12,835	△34.2	△37.3
전갱이	8,793	13,752	9,811	11.6	△28.7
참조기	1,707	1,364	1,612	△5.6	18.2
삼치	9,786	9,282	10,694	9.3	15.2
가자미류	10,386	12,765	15,149	45.9	18.7
청어	17,705	16,825	6,710	△62.1	△60.1
붉은대게	14,059	9,193	10,840	△22.9	17.9
꽃게	3,236	2,588	4,797	48.2	85.4
아귀류	9,397	7,804	11,633	23.8	49.1
전어	4,766	2,998	6,394	34.2	113.3
도루묵	2,173	1,856	578	△73.4	△68.9
기타	160,755	156,563	167,648	4.3	7.1

참고2

월별 · 품종별 양식업 생산동향

(단위 : 톤,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	287,750	307,071	504,324	271,965	234,553	231,823	58,260	70,109	51,661	57,732	121,337	213,454
'20년(A)	247,434	285,927	425,000	317,369	195,657	175,721	125,970	81,024	55,239	55,372	123,080	220,356
'21 (B)	276,960	313,511	486,498	305,418	228,801	121,760						
대비(B/A)	11.9	9.6	14.5	△3.8	16.9	△30.7						



《 연도별 상반기 》

《 월별 》

□ 품종별 생산동향

(단위 :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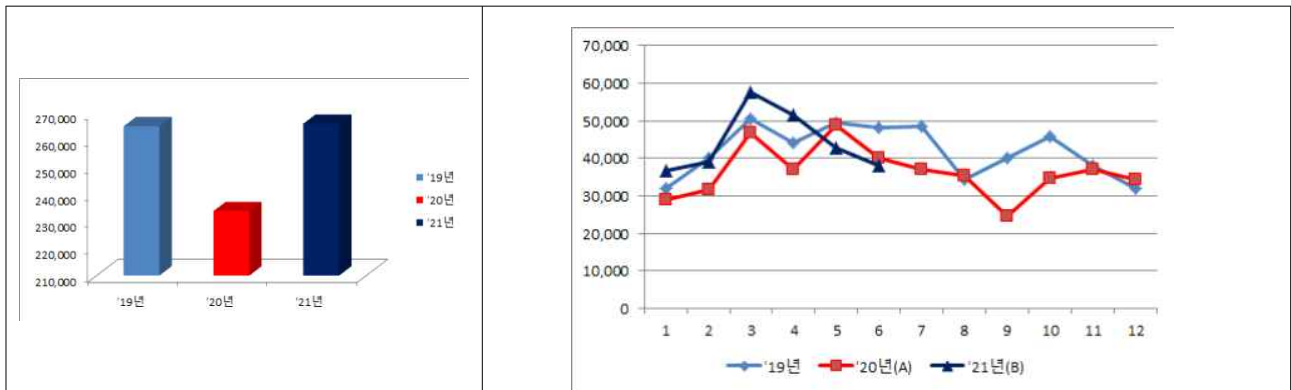
구 분	최근 5년 평균	2020년	2021년	최근5년 평균 대비 증감율	전년 대비 증감율
계	1,644,910	1,647,108	1,732,948	5.4	5.2
미역	499,159	473,034	549,783	10.1	16.2
다시마	401,539	445,671	441,860	10.0	△0.9
김	411,731	401,144	419,649	1.9	4.6
굴	171,947	163,228	173,467	0.9	6.3
홍합	32,434	34,879	35,110	8.3	0.7
넙치	20,753	21,573	20,368	△1.9	△5.6
돔	23,850	20,622	16,771	△29.7	△18.7
우렁챙이	26,538	27,679	14,776	△44.3	△46.6
전복	7,889	9,342	10,644	34.9	13.9
조피볼락	11,102	10,547	10,437	△6.0	△1.0
송어	4,283	4,462	6,465	51.0	44.9
파래	4,832	5,411	5,607	16.0	3.6
바지락	4,667	6,508	4,910	5.2	△24.6
참돔	2,909	2,709	4,287	47.3	58.3
가자미	1,984	2,319	3,599	81.4	55.2
기타	19,293	17,981	15,216	△21.1	△15.4

참고3

월별 · 어종별 원양어업 생산동향

(단위 : 톤,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	32,156	40,195	50,472	44,293	49,514	48,232	48,414	34,336	40,251	45,736	38,199	31,998
'20년(A)	29,100	31,761	46,960	36,994	48,886	39,987	37,149	35,448	24,542	34,853	37,065	34,258
'21 (B)	36,775	38,926	57,542	51,724	42,885	37,957						
대비(B/A)	26.4	22.6	22.5	39.8	△12.3	△5.1						



《 연도별 상반기 》

《 월별 》

□ 상반기 어종별 생산동향

(단위 : 톤)

구 분	최근 5년 평균	2020년	2021년	최근5년 평균 대비 증감율	전년 대비 증감율
계	249,559	233,688	265,809	6.5	13.7
가다랑어	117,888	104,612	116,020	△1.6	10.9
오징어류	38,151	36,062	66,025	73.1	83.1
황다랑어	27,530	30,427	22,799	△17.2	△25.1
눈다랑어	12,387	13,027	12,370	△0.1	△5.0
명태	3,275	3,827	3,039	△7.2	△20.6
민대구류	2,963	1,111	3,020	1.9	171.8
메로(이빨고기)류	1,486	1,469	1,889	27.1	28.6
녹새치	881	917	606	△31.2	△33.9
날개다랑어	714	596	564	△21.0	△5.4
가오리류	537	451	438	△18.5	△2.9
붉은메기	417	155	384	△8.0	147.7
황새치	547	489	334	△38.9	△31.7
홍어류	318	125	322	1.2	157.6
민어류	352	180	172	△51.1	△4.4
기타	42,113	40,240	37,827	△10.2	△6.0